

GDP를 공부한 모나씨 이기때문에 이제부터

텔레그램이나 다른 경제뉴스를 볼 때 GDP 혹은 국내총생산과 관련 뉴스를 보게 된다면 '내가 아는 거야!' 하면서 쉽게 읽어버리고

뉴스가 주는 메시지도 알아내는 35살 하마가 될수 있었음 좋겠어. 물론 단지 스크립트 한번 봤다고 해서 모든 걸 알순 없겠지만 부족한 나랑 같이 공부해요!!

조금 난이도 있는 내용들은 재차 질문도 해주면 좋겠음! 좀더 지나면 내 실력이 모두 뽀록 날텐데 그땐 솔직히 말하고 좀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답해 볼께

옆에 사진은 2022년 **세계 총생산의 각국의 점유율** 사진이야. 미국.. 중국.. 일본.. 대단하고.. 한....쿡..ㅎㅎ

우리 한국은 한 2%센트 정도 된다고 해요.



이 그래픽은 그냥 보자마자 그레이트 아메리카야.. 미국의 위대함을 한눈에 아주 보기 쉽게 볼수 있는 자료인데...

미국의 주들의 생산량괴 비슷한 GDP를 보여주는 나라들을 대입해본 자료야..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던 영국은 캘리포니아면 커버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내가 좋아하는 뉴욕으로 커버가 되고

땅떵어리는 거의 비슷한 캐나다는 텍사스로 퉁치면 되는 나라가 미국 이야..

전략 게임을 하면서 치트키를 쓰고 한다는 말을 들을만 하지.... 글로벌 GDP는 미국, 중국 순인건 알겠고 우린 주식을 가장 많이 투자할 사람들이니깐 전세계 국가별 시가 총액도 한번 볼까요?

당연하게도 미국이 1위인건 알겠고 2위는 또 당연히 중국이야..

그런데 Total market cap이 조금 이상 하지 않아? 미국의 시가 총액은 GDP 대비 194.5% 중국의 시가 총액은 65.1%

미국과 중국의 GDP차이보다 시가 총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더 크게 나는 이유가 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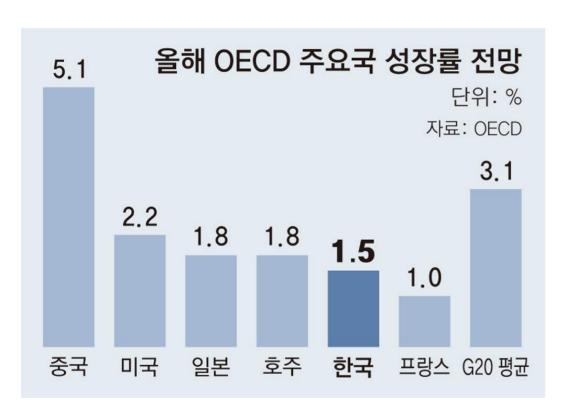
*참고로 M7(매그니피센트7) 시총만 모아 도 중국 전체 시장보다 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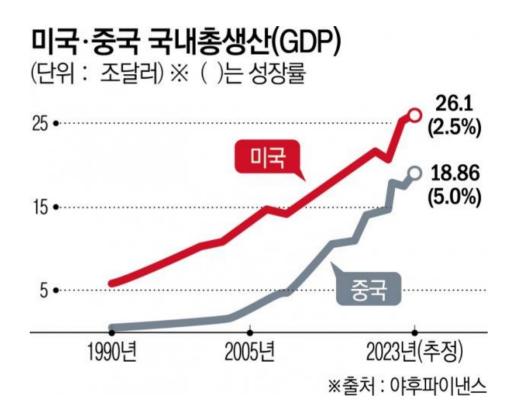
	Country •	Total market cap (in mil. US\$)[2]	Total market cap (% of GDP) ^[3]
1	United States	49,653,000	194.5
2	China China	10,889,318 ^[5]	65.1 ^[6]
3	Japan	5,474,985 ^[7]	126.7 ^[8]
4	India	4,276,000[9][10]	120
5	Hong Kong	3,966,952 ^[11]	1,262.6 ^[12]
6	France	2,823,000	84.9
7	United Kingdom	2,821,000	100
8	■◆■ Canada	2,641,455	160.7
9	Saudi Arabia	2,429,102	347.0
10	Germany	2,284,109	60.0
11	South Korea	2,176,190	133.5
12	Taiwan	2,007,560	267.1
	The second se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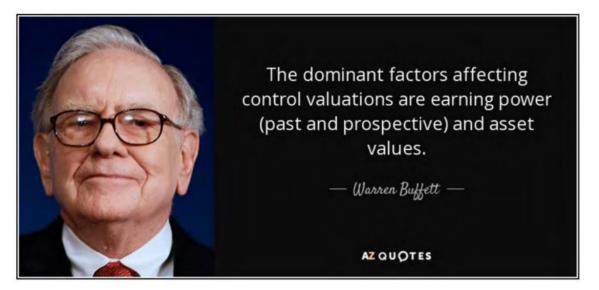
앞선 질문에 답을 혹시 GDP 성장률에서 찾았을까? 당연히 오답이야. 미국이 작년과 올해 아무리 위대한 성장을 기록했다 해도 아직 중진국이란 평가를 받는 중국의 성장률을 넘을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어떤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는 주가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되!!

그럼 왜? 국내 총생산은 주가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대체 무엇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걸까?







(기업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Earning Power(과거/미래 수익력)와

Asset Values(자산 가치)이다.

-갓갓 버핏-

국내총생산(경제성장률)이 주가에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는 뭘까?

그건 GDP는 국가 총생산을 GDP 성장률은 국가(나라)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야. 다시말해 GDP는 기업의 총생산과 기업의 성장률을 지엽적으로 다룰뿐이고 주가와 관계성이 높다고 볼수 없어.

그럼 기업의 가치(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 일까? 그건 바로 기업의 이윤(Earning)이야.

기업의 이윤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쉬운 방법은? 그게 바로 EPS(Earning Per Shares / 주당순이익) 이야. 위에 사진에서도 볼수 있듯이 버핏옹도 이윤이 가치평가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고 또한 애널리스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를 물어보는 설문조사에서도 1등은 항상 EPS야.

물론 EPS가 기업 분석의 모든 것이라 할 순 없지만 모른다는건? 말이안되.

EPS의 기본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어.. 휴.. 이제 부터 심화 과정이야.. 이 또한 내 장담 하는데 긴트내에 아니 우리 건물내에 이만큼 아는 사람 다섯명만 있다면 내 엔디비아 다 모나 줄께

지금부터 배울 내용이 어렵다는게 아니라.. 정말 쉬운 내용인데.. 이만큼도 모른채로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하고 싶은거야.

EPS란? Earning Per Shares 주당 순이익이야. 순이익을 주식 발행수로 나누면 되. 그냥 순이익이다. 생각하면 대. EPS는 기업의 이익!

그럼 EPS는 어떤식으로 나오게 되었을까?

 $EPS = BPS \times ROE$

주당 순이익 = 주당 순자산 x 자기자본 이익률

갑자기 어렵지? 위에 식 에서 '주당' 빼고 '순' 빼고 '자기자본' 빼고 다시 보자.

이익 = 자산 x 이익률

이익 = 자산 x 이익률

$EPS = BPS \times ROE$

EPS (Earnings Per Share, 주당순이익):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낸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회사가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낸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

BPS (Book-value Per Share, 주당순자산): 한 주당 얼마의 순자산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주당 이익'은 '주당 자산'과 '자기자본이익률'의 곱이라고 이해하면 되이건 회사 재무 성과를 측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야~!

매우 어려워 하는 내용인데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을까? 이해가 안되도 상관없어. 아래 두개만 외워바바. 안외워지면? 내설명이 부족한거야. 난쥬 또설명할께!!!

> EPS는 기업의 수익 ROE는 기업의 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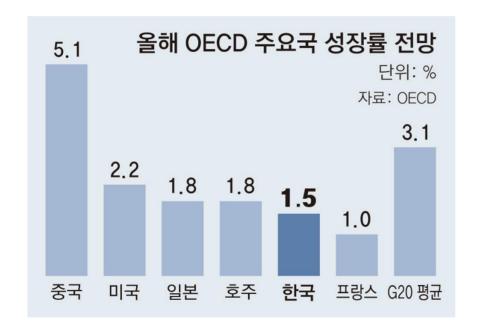
다시 앞으로 돌아갈께!!! 먼 길 돌아 오느라 수고 했어!!!!

경제 성장률(GDP 성장률)이 주가에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는 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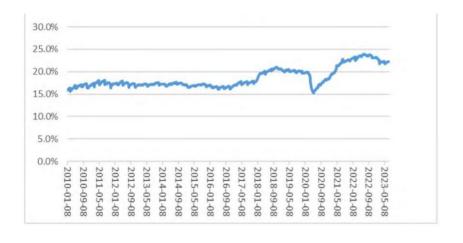
그건 GDP는 국가의 성장률 지표이기 때문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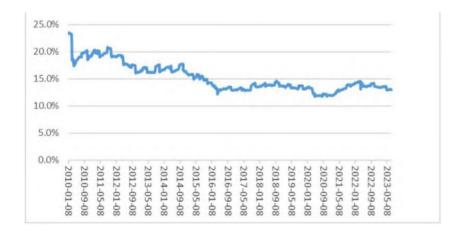
국가의 생산성과 성장률을 볼 수 있는 건? GDP와 GDP 성장률 기업의 생산성과 성장률을 볼 수 있는 건? EPS와 ROE

아래 우측은 지난 10년간 ROE 평균과 현재 좌측은 아까도 보여줬던 GDP 성장률이야.. 모나는 어디에 투자할래?



		Now
미국	18.0%	22.2%
유럽	11.8%	14.1%
중국	15.6%	13.0%
일본	9.7%	10.3%
한국	10.3%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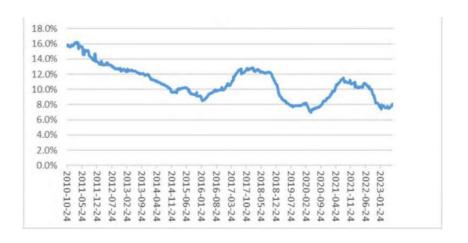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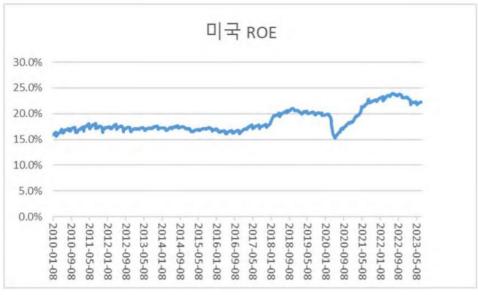


여기 세개의 그래프는

3개의 국가의 주식 INDEX ROE 그래프야.

그래프만 봤을 때 모나라면 어디에 투자 할래?







혹시... 딴 거 선택 했으면... 딱밤이디.....

이제 앞으로 GDP 성장률 00%의 XX나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카는 개소리하는 아무개가 있다면 훗 하면서 개 비웃어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음.

결론. EPS, ROE는 수익, 이익률 맨날 나오는 결론 이지만 미국은 짱이다... 퍼킹 니거라도 하고 싶다.... ㅋㅋㅋ 모르는 내용 언제든 질문 및 피드백 대환영

